

“하나되는 경북, 함께 만드는 지방시대” 1000여명 한 목소리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

개도 130주년·도민의 날 30주년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수여
이철우 지사 “새로운 미래 열어야”

경상북도가 개도 130주년과 도민의 날 지정 30주년을 맞아 22개 시·군 도민과 함께 새로운 지방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동라관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수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 22개 시·군 시장·군수 및 도의원, 기관단체장, 출향도민회 관계자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2개 시·군기와 경북도기의 입장을 시작으로 독도사랑 스포츠공연단의 축하공연,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AI 주제영상 상영, 미래 비전 퍼포먼스, 도민의 노래 합창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각 시·군의 특색과 발전 방향을 담은 홍보영상 속에서 시장·군수들이 직접 시·군기를 들고 입장해 화합의 의미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동라관에서 ‘2026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를 더했다.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에 헌신해 온 도민 41명에게는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이 수여됐다. 특별상은 정혜순 정우하이텍 대표, 나머지 조엘 진 예천군청 육상팀 선수,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 고운자안동시자원봉사센터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 김찬수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윤난숙 경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신순옥 북대진집 에프앤비 대표에게 돌아갔다. 또한 본상에는 포항시 김성훈 씨 등 각 시·군을 대표하는 33명이 영예를 안았다.

이어 상영된 AI 주제영상은 매소성 전투의 역사적 승리에서 출발해 경북의

호국·화랑·선비·새마을 4대 정신을 조명했다. 아울러 K-푸드산업, 통합산공항,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등 과거의 도전이 미래로 이어지는 경북의 여정을 살감 나게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경북의 미래를 밝히다’ 퍼포먼스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주요 내빈들이 경북의 미래를 상징하는 씨앗을 함께 들어 올렸으며, 대형 화면에 22개 시·군의 비전이 나무에 맺히는 장관이 연출됐다. 참석자들은 “하나되는 경북, 함께 만드는 지방시대”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호명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도민의 노래’를 제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개 시·군의 역량과 도민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다음 세대에 더 큰 기회와 희망을 남기고,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안동(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용인시, ‘통삼2 산단’ 조성계획 승인

내년 착공·2028년말 준공 목표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입주 기대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 59-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용인 통삼2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산업단지는 총사업비 약 1374억원을 투입해 17만6234㎡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전체 부지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12만1344㎡이며, 나머지 공간에는 지원시설과 주차장,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입주 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이다. 시는 반도체 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



통삼2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

업의 입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중고 장비 기업인 ㈜서플러스 글로벌도 사업 영역 확대와 관련 산업 간 연계성을 고려해 입주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산업단지 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입주와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포항시, 내일 ‘골목상권 활성화 포럼’ 개최

무료 참석… 주요의견은 정책 반영

포항시는 오는 27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2026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 포럼’을 개최한다. 골목형 상점가가 1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검색을 실제 방문으로 연결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지원사업을 매출 증가로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검색되는 골목, 머무는 상권, 포항다운 로컬 브랜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골목경제 전문가와 지역 상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시민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검색과 SNS를 활용한 방문객 유치, 견고 머물기 좋은 골목 조성, 지역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다룬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초대 연설을 하고, 김경숙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는 골목형 상점이 지정 이후 공동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윤정현 영남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전략, 김주일 한동대학교 교수는 생활권 상권, 이민주 아워시선 대표는 로컬 브랜드와 재방문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상권 관계자와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가 공동 마케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상인과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주요 의견은 포항시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교육청, ‘365일 독도교육’ 확대

경북교육청은 제126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울릉도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학습과 학교 수업, 현장 체험을 연계한 ‘365일 독도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개교 5주년을 맞은 사이버독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교육과 학생 독도탐방, 독도교육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026 사이버독도학교 독도의 날 온라인 축제’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도 확대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월간 독도’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교사 독도

자율탐방 동아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해 공유한다. 독도탐방 가이드북 ‘우리 독도’는 사전학습과 현장 체험, 탐방 후 교육활동을 연결하는 데 활용된다.

학생들의 현장 체험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도탐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 명의 학생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배우고 교실에서 탐구하며 독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365일 독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영양군, 건고추 출하조절시설 사업 확정

남영양농협과 100억 규모 추진

영양군과 남영양농협협동조합이 건고추 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100억원 규모의 출하조절시설 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저장시설 확충과 계약재배 체계 정비를 통해 수매 물량을 늘리고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지역 고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조건부 선정 이후 행정절차와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한 끝에 최종 확정됐다. 영양군은 지역 대표 작물인 건고추의 유통 인프라를 확충해 주요 고추 산지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에 남영양농협 부담금 30억원이 더해진다. 사업 시행을 맡은 남영양농협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첨단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출하조절시설을 구축하고 건고추 수매·취급 물량을 기존 446톤에서 6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장과 출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력과 거래 교섭력을 높여 농가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영양군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한다. 남영양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매와 판로 확보를 맡는다. /영양(경북)=김대우 기자 kld.0307@

지역 이모저모

전재수 시장, 스틸 대사 회동 부산-美 교류협력 방안 논의

부산시 전재수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부산과 미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스틸 대사의 부임 후 첫 부산시 공식 방문이다. 전 시장은 부산 방문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어진 관계가 항만·물류·경제·문화 등으로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티 대사는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방문 이후 부산이 크게 달라진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눴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하동군

‘균형성장사업’ 대통령 표창

하동군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6년 균형성장사업 우수 사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전선 복선화로 폐선된 옛 하동역 일원을 복합 거점으로 바꾼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동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하동~횡천 간 폐철도를 활용한 군민 행복 이음길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이번 수상은 옛 하동역을 청년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문화·일자리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하동(경남)=이정민 기자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확대 추진

부산시의회는 김태호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안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정례회 회기를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를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의할 시간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위원장은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해 시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정민 기자

전남광주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2~23일 나주에서 AI시대 진로·진학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진로심리검사와 코칭 기법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상담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환경과 2028학년도 대학입시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진학지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고도화된 진로진학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r6313@